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2012 / 7

다시 읽는 산방한담 / 법정스님	4	예절이 사람을 만든다
처음 마음으로 / 덕운스님	8	진실한 믿음은 흔들림이 없다
가슴이 따뜻한 기업들	13	육식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늘어난다
이런생각 한번 어때요	20	착한 걸음으로 지구별과 함께, 키엘Kiehl's
茶 내음 가득한 시간	24	녹차와 다수(茶壽)
참 좋은 문화 길라잡이	27	말하는 건축가, 어머니, 두 개의 문
행복한척	31	또 다른 편지
한국의 탑	32	남원 실상사의 쌍탑
시심청심	34	길상사에 간다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환경사랑	36	공정여행
맑고 향기롭게 활동 소식	38	중앙모임 부산, 대구, 경남, 광주, 대전모임
길상사 소식	45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 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2년 7월 1일 발행 / 통권 209호 / 등록번호 라08708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발행인 덕운 / 편집장 홍정근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7 전송 741-4698 /
인쇄인·인쇄처 디자인나경
부산모임 : (051)898-2672~3 / 대전모임 : (042)823-0770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 대구모임 : (053)753-8883
<http://www.clean94.or.kr> E-mail :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6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E-mail : kilsangsa@hanmail.net

예절이 사람을 만든다

글 • 法頂(스님)

주말이 아니라도 도시의 시외버스 정류장은 항상 붐비고 있다. 사람의 수가 늘고 생활이 다양해짐에 따라 유동 인구도 많아진다. 사람과 짐으로 혼잡을 이루면서도 이제는 조금씩 질서가 잡혀가는 걸 보면 흐뭇하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서로 먼저 자리를 잡겠다고 앞을 다투기가 일쑤였는데, 요즘에는 어디를 가보아도 묵묵히 줄을 서서 차례대로 오르내린다.

그런데 이따금 우리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는 과립치한 압채들이 있어 공중 질서가 채 굳어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얼마 전 공주에서 부여로가는 버스 정류장에서 목격한 일이다. 다들 줄을 지어 차례대로 승차를 하고 있는데, 뒤늦게 온 한 사람은 무슨 묘기라도 보

이듯 버젓이 창문으로 기어 올라가 자리를 잡는 것이었다. 아무도 탓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런 짓은 1950년대에나 있었던 '묘기가 아닌가. 쓸쓸하고 불쾌한 풍경이었다.

서울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는 버스에서 내려 택시를 타려면 쇠파이프로 울타리를 친 긴 통로를 거쳐야 한다. 아마 새치기의 혼란을 막기 위한 배려에서였으리라.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대개가 무거운 짐이 있게 마련이다. 짐을 머리에 이거나 어깨에 메고 차를 기다리며 서 있는 연약한 부녀자와 노인들 틈을 비집고, 한 사내가 무슨 급한 볼일이라도 있다는 듯이 앞으로 앞으로 밀치고 가더니 먼저 차를 잡는다. 그 뻔뻔스런 40대의 사내 녀석을 보고

저게 바로 우리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회악의 암세포로구나 싶었다.

협동이란 함께 있고 같이 움직이는 질서요, 예절이다. 그러한 감정 속에는 자기 하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관념이나 고집이 있을 수 없다.

함께 있고 움직이는 그 속에서 사람과 사람은 서로 믿고 굳게 맺어질 수 있다. 무엇이 진실이고 질서이며 예절인지 스스로 터득하는 노력이 없다면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짐승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시외버스에는 차마다 금연석이 있고, 어떤 열차에는 금연칸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지난 가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가는 새마을호 열차를 탈 때 금연칸이 있는 줄 비로소 알고 표를 사면서 아예 금연칸을 배정받았다. 그 칸은 나처럼 담배 연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만 탄 모양으로, 주로 어린이를 동반한 부녀자들과 몇 사람의 외국인도 섞여 있었다. 맑고 쾌적한 실내 분위기 속에서 모처럼 여행의 즐거움이 부풀어 올랐다.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창 밖에 눈을 주고 나직이 휘파람으로 노래하는 한 아가씨를 건너다보고 나는 그녀에게 글을 사주고 싶도록 천연스러워졌다.

대전을 지나서였다. 웬 담배 연기 냄새가 해서 바라보니, 몇 자리 앞좌석에서 한 사내가 뻔뻔스럽게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저 녀석 보게, 금연칸에서 담배를 피우다니? 못된 녀석이네. 피우려거든 금연칸 아닌 데에 가서나 피울 일이지.' 하고 혼자 중얼거리자, 이번에는 바로 그 뒷자리에 앉은 여인이 먼저 시작하는 사람을 기다렸다는 듯이 버젓이 담배를 꼬나물고 연기를 내뿜었다. 지나가는 승무원이 제지했지만 그들은 그때뿐, 부산까지 마음 놓고 피워댔다.

바로 여기에 우리들의 문제가 있다. 남이 하나까 나도 한다.

남들도 하는데 나는 왜 못 해? 나만 바보가 되라고? 자기 질서가 없으면 이

런 논리에 휘말리게 된다. 자기 나름의 질서와 생활규범이 없으면 정당치 못한 일임에도 돌레의 분위기에 동화되고 마는 것이 범속한 일상인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강한 승리자라는 말이 있지 않던가. 한 개인의 일에 국한된 문제라면 누가 담배를 피우건 고향을 치건 참견할 바 아니지만, 이웃에 피해를 끼치게 되니 모른 채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호흡하는 공기를 더럽히는 것은 분명히 공중(公衆)의 적이요, 사회악이 아닐 수 없다.

예절은 아름다운 인간 행위의 표현이다. 예절을 익히려 하면 항시 함께 사는 이웃을 의식하고 인내와 극기를 길러야 한다.

우리 사회의 공중도덕은 많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바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중음식점 같은 데서는 어서 가져오지 않느냐고 고향을 쳐대는 아귀다툼을 보게 되고, 시골 버스 정류장의 공중변소는 너무도 한심스럽다. 정말 바깥사람들이

볼까 무섭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재 생활수준이고 공중 질서란 말인가.

다들 위대한 것만을 좋아하는 요즘은 시골읍 같은 데도 곧잘 아치 관칸에 위대한 무슨 고을이라고 과시하는 데가 많다. 그러나 막상 그 위대한 고을의 공중 장소에 가서 보면 위대하다는 뜻이 무엇을 가리킴인지 알 수가 없다. 우리 시대는 언어마저 혼란이 너무 심하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절대다수 서민 계층에서는 공중목욕탕을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질서와 예절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곁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아랑곳없이 비눗물을 끼얹어 튀기는가 하면, 바닥에 벌렁 나자빠져 볼썽사나운 꼴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인간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사람은 홀로 사는 게 아니라 수많은 이웃들과 함께 산다.

함께 살면서 서로가 배우고 고치고 익히는 동안 조금씩 성숙해간다.

성숙한 사람만이 진정한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약수터의 풍습을 보기로 하자.

대도시 사람들은 땅에서 나오는 물은 모두가 약수인줄 안다. 그만큼 수돗물은 이제 믿을 수 없도록 오염되어 있다는 소식이다. 그래서 이른 아침이면 우물가마다 장사진을 치고 있다. 마시고 조금씩 떠가는 거야 어찌라만, 어떤 사람들은 커다란 물통을 서너 개씩 가지고 와서 남의 사정은 무시한 채 혼자서만 탐욕스럽게 가득가득 채워간다.

기다리다 지쳐 물 한 모금 마셔보지도 못하고 땀입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볼 수 있다. 서울 강남 봉은사 관전(版殿) 아래 우물에서는 아침마다 이런 풍경이 재현되고 있었다. 제대로 쉴 여유도 주지 않고 박박 파내기는 우물을 보고 있으면 애처로운 생각이 들었다.

자기만을 알거나 자기 개인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더 물을 것도 없이 불행하다. 그들의 가슴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사랑은 나와 남 사이에 장벽이 없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꽃향기처럼

배어나온다.

사람은 이웃으로 향한 따뜻한 눈길과 손길에 의해서만 자아의 굴레에서 놓여 날 수 있다. 마음과 전 존재를 내주면서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람이 된다.

이런 마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 아무리 국민 소득이 늘고 교육열이 왕성하고 국제 경기에서 메달을 무더기로 쓸어온다 할지라도 인간의 아름다운 덕성인 예절과 공중 질서가 몸에 배지 않는다면 우리 겨레의 인간적인 자질과 품성은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우리들 자신이 예절과 질서를 만들기도 하지만, 또한 그 예절과 질서가 우리를 만들어간다.

일상의 사소한 일에서부터 예절과 질서가 지켜질 때 우리도 명(名)과 실(實)이 상부한 문화 국민임을 자부할 수 있다. 위대하고 뛰어난 것은 정치인들의 연설에 있지 않고 우리들의 인간적인 양식과 품위 있는 행위에 달린 것임을 다 같이 기억해둬야 할 것 같다. 1982

- 산방한담 중에서 -

진실한 믿음은 흔들림이 없다

글 • 德 耘(스님)

〈화엄경〉 현수품에 “믿음은 도의 근본이요, 공덕의 어머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 일체의 선법을 키우며 모든 의혹에서 벗어나 해탈 즉 열반을 이룰 수 있다는 것으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능엄경〉에서도 “항상 머물러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믿는 것을 신심이라고 말한다.”라고 하였고, 〈지도론〉에서도 용수보살은 “불성의 큰 바다는 믿음으로 들어와 지혜로 건넌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이 역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로서 믿음이 바탕이 되어 지혜로서 생사고해(生死苦海)를 벗어나 열반에 이른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믿음이 가지는 비중은 큰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가 올바른 믿음으로 정법(正法)을 수행하는 가풍을 지니지 못하고 사이비종교로 전락해 버린다면 그 믿음은 아무런 공덕도 성취하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만 황폐화될 것입니다.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서는 믿음 그 자체가 생활의 바탕이 되어 자기의 삶을 지탱하는 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믿는 종교만이 절대 유일한 것이라고 집착하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것을 맹신 즉 맹목적 믿음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불가(佛家)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불교인이 되려면 자기가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종교 즉 불교도 뛰어넘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만이 유일한 것이고 절대적인 가치라고 판단해서 그 속에 함몰되어 버리면 다른 종교나 가치에 대하여는 배타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Temple stay의 마지막 과정에 있는 “스님과의 대화” 시간에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말을 종종하곤 합니다. 불교든, 기독교든, 천주교든 어떤 종교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없다고 말하며, 다 그 종교 나름의 가치와 장점과 특색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종교를 믿고 실천하되 다른 종교도 인정하고 교감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웃 종교인 기독교 교리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 중에 “나 이외에 신(神)을 믿지 말라”는 말이나 “내가 길이요, 빛이요, 진리다.”라는 말도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 ‘나’라는 것이 예수 본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있는 절대신성(絕對神性)

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나’가 예수님 당신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그 분은 정말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을 가진 분으로서 성인이 예초부터 될 수 없는 비인격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라는 개념을 절대신성으로 볼 때 성경과 예수님 말씀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불교에서도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서의 ‘나’도 부처님 당신을 가리키는 1인칭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지니고 있는 불성(佛性)이라고 보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이 깊이가 있고, 무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제1의 계율로 불살생을 세우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맹목적인 것이 되어서도 안 되고 배타적인 것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理性)의 자발성에 의한 진실한 믿음만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믿는다는 것만으로 인간성을 상실하는 기형적인 심리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며 더 나아가서 믿음을 통하여 자기의 심성개발(心性開發)이 더욱 진보되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인격이 향상되고 성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화엄경>에서 수행의 단계로 신해행증(信解行證)의 4단계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이해와 실천과 체험이라는 단계를 통하여 수행이 완성된다는 뜻일 것입니다.

즉 믿고, 바로 알고, 실천할 때 진리(眞理)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디까지나 믿음이 수행의 초석이 되어 그 신심의 활력으로서 가장 높은 진리의 세계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공덕(功德)이 되긴 하지만, 믿음의 질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은 물이라도 소가 마시면 우유를 만들고, 뱀이 마시면 독을 이룬다

고 하였습니다. 잘못된 영터리 믿음은 우리들의 정상적인 사고력을 파괴해서 잘못된 사상(思想)을 이입시켜 사람을 전도되게 만들고 삿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실한 믿음, 건전한 믿음을 가지고 신행생활을 지혜롭게 하면서 육바라밀을 실천해 나갈 때 나와 너 우리라는 공동체가 좀 더 성숙되고 살기 좋은 사회가 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선문염송 이야기입니다.

세존께 어떤 의도가 물었습니다.

“어제는 무슨 법(法)을 말씀하셨습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법(定法)을 말했노라.”

의도가 다시 물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법(法)을 말씀하셨습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부정법(不定法)을 말했노라.”

이에 의도가 물었습니다.

“어제는 정법(定法)을 말씀하셨거늘, 오늘은 어찌서 부정법(不定法)을 말씀하셨습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는 정법(定法)이요, 오늘은 부정법(不定法)이나라.”

이 설화는 선문염송 제 1권 13의 정법(定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 불법(佛法)이란 원래가 정(定)해진 상(相)도 없고 정(定)해지지 아니한 상(相)도 없어서 이 모든 게 중생의 근기를 따라 설해졌으며, 일체가 시기에 따른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금강경에 무유정법 시명 아록다라삼막삼보리(無有定法 是名 阿耨多羅三藐三菩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한 법이 있어 아록다라삼막삼보리라 할 만한 것이 없다는 뜻인데, 곧 모든 법이 다 불법(佛法)이 될 수 있다는 뜻이 내포된 것입니다.

우리 불법이란 정해진 틀이 없으니

있다 하여도 되고, 없다 하여도 되며, 정법(定法)이라 해도 되고, 부정법(不定法)이라 해도 되나니, 마치 허공이 넓고 탕탕하여 아무런 걸림이 없으므로 마음대로 파고 들 수도 있으며 중형으로 자제한 것과 같다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법(定法)이니 부정법(不定法)이니 하고 말한 것은 의도의 단상의 두 견해를 일컫는 말입니다. 의도와 범부들은 항상 유무의 양 끝단에서 서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있다하면 상주한다고 생각하고 없다하면 영원히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법(法)이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소멸하는 이치를 모르는 소치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法)을 설함에 있어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을 이루고, 소가 물을 마시면 젖을 이루듯이 같은 법이라도 법(法)의 혜안(慧眼)이 밝은 사람이 법을 설한다면 삿된 법도 모두 정법(正法)으로 돌아가고, 삿된 사람이 법을 설한다면 정법(正法)을 설하더라도 모두

가 사된 범으로 돌아간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이 말의 저변에 깔린 뜻은 “인생을 사투어 간다.”는 뜻입니다. 즉 중이를 태우는 것을 ‘사투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인생을 태워간다는 뜻이고, 이는 하루하루 죽어간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경허스님 참선곡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푸죽간에 가는 소가 자국 자국 사지(死地)로세.”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푸죽간은 오늘날 도살장을 말합니다.

즉 도살장에 가는 소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죽음의 장소로 옮겨 간다는 뜻입니다.

어찌 인생이 길다하고, 쓸데없는 일에 매달리고, 참견하고 시비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불자님들! 기도하시는 분은 기도로서, 간경하시는 분은 간경으로서, 참선하시는 분은 참선으로서, 주어진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며 스스로 그 뜻을 밝혀나가는 참된 불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항상 좋은날 되십시오.
불기 2556년 5월 초하루
(2012년 6월 20일) 범문

부산모임 - 제 15회 전국 학생 문예작품 공모전

전국 고등학생들에게 맑고 향기로운 우리말과 글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미래의 작가를 발굴함에 취지를 두고 문예작품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 자격: 전국 고등학생
- 부문: 시·시조, 소설·동화, 수필
 - 자세한 내용과 응모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제출
 - 기간: 2012년 6월 1일 - 8월 31일
 - 응모처: 맑고 향기롭게 부산모임(pusanmh@hanmail.net)
- 문의: 부산모임 전화: (051)898-2672, 2673

착한 걸음으로 지구별과 함께, 키엘 Kiehl's

글 • 변택주

대량소비가 자원이 고갈되고, 환경 오염으로 지구별이 더위지고 생태 질서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우리는 질 좋은 상품을 사려는 ‘소비자’이면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희망하는 ‘시민’이다. 물건을 고르는 내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자원 고갈이나 환경과 파괴로 이

어지고, 저개발국가 사람들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조금만 신경 쓰면 환경을 보존하고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운동에 동참할 수 있다.

이윤은 지역사회에 되돌리는 키엘

1851년, 콜롬비아 약대를 졸업한 존 키엘 John Kiehl's이 뉴욕 이스트빌리지 13번가에 조그만 약국을 열었다. 천연 허브를 공부한 ‘모스 박사’라고 불렀던 어빙 아론 모스를 채용했다. 키엘과 어빙 모스는 미국 식물들에서 추출한 수많은 독특한 물질들을 제조하여, 키엘 고유 서비스와 제품 제조 전통을 일궈냈다. 10년 뒤, 물러나는 키엘에게 회사를 인수한 어빙 모스는 식물에 관한 전문 지식 그리고 삶과 키엘을 향한 열정



이윤은 사회에 되돌려야 한다고 선언 키엘 미션을 확립한 3대 어빙 모스 앞줄 세 번째

을 아들 아론에게 물려줬다. 키엘 3대 계승자 아론 모스는 콜럼비아 대학에서 화학전공 학위를 받았다. 아론은 당시 미국 최초 페니실린 제조업체이자 단독 공급업체였던 제약회사 모스 연구소를 창설, 제약분야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160년 역사를 가진 화장품 브랜드 키엘은 약국에서 비롯했기 때문에 약을 만드는 마음으로 으뜸가는 천연성분을 찾아 무향·무색소·최소방부제를 쓰려는 원칙 위에서 화장품을 만든다. 미국정부에 방사선 노출 화학 치료 특수 알로에 베라크림을 공급하기도 한 모스 연구소는 뒷날 제품력이 떨어진 화장품을 만드는 뼈대가 됐다. 아론 모스는 화장품 산업계에서 최초로 남성 고객 피부와 헤어 케어 니즈를 충족시켰다. 그는 매장을 방문하는 남성 고객들에게 즐거움을 주려고 자신이 타는 모터사이클과 람보르기니 컬렉션을 약국에 진열했고, 남성 고객들이 더욱 즐겁게 쇼핑을 할 수 있었다. 이렇듯 아론 모스는 고객들 개별 니즈를 철저하게 맞

추도록 애쓰면서, 1971년 '키엘 가족 의무'를 선언했는데 핵심은 "이웃이 있는 지역사회에 되돌려야 한다."였다. 그 의무 바탕에서 키엘은 새로운 곳에 매장을 열 때마다 지역 발전과 주민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한국 전통과 역사가 잘 살아있는 삼청동에 첫 번째 단독 매장을 낸 키엘은 가까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진 고궁을 보존하려는 마음으로 창덕궁 자연환경보존기금을 냈다.

키엘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착한 걸음' 프로젝트는 '환경, 아이들, 에이즈' 세 가지 테마로 전 세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에이즈 퇴치 교육과 후원, 국제 미아·착취 아동을 위한 기금 마련, 핀란드·아마존 밀립 보존 운동 같은 활동을 펼쳐 수익을 사회에 돌려왔다. 본사에서 진행하는 글로벌 캠페인에는 미국 유명 인사들이 동참한다. 대표 보기로 2008년에는 영화배우 브랜드 피트와 함께 전 세계 환경보호를 위한 '줄리 피트 파운데이션 에코시스템'을 설립,

첫해 판매 수익금 10억 원을 기록할 만큼 선봉을 일으켰다. 2011년 배우 클로에 세비니와 함께 '클렌징 마스크' 한정판 레이블을 만들어 얻은 판매 순수익금 10만 달러(약 1억1000만원)를 세계 수질보호연합에 기부했다. 세계에 명성을 떨치고 있는 현대미술가 제프 쿤스는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보디코림 '크렘 드 코르' 홀리데이 한정판 레이블을 그려줬다. 이 제품 수익금 일부는 제프 쿤스가 관여하는 국제미아·착취 아동보호센터에 기부했다.

지난해 창립 160주년을 맞은 키엘은 진출한 39개 나라에서 생일잔치를 열고, 새로운 사회공헌 활동을 선보였다. '힙 홍콩 소사이어티', '세이브 더 칠드런'과 같은 어린이를 위한 단체, '와일드라이프 워리어즈', '생명 숲'을 비롯한 환경 단체, '슈바이처 에이즈 릴레', '애프터 어워드 프로젝트' 같은 에이즈에 걸린 이들을 돕는 지구별 자선 기관 24개에 1만 6000달러를 기부했는데, 어디에 얼마만큼 기부할지는 전 세계에서 동시에 진행된 소비자 투표로 결정했다. 키

엘 추구해온 '지역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착한 걸음' 철학을 들춰본다.

경영 5원칙

사람과 환경을 사랑하는 키엘 기업 문화 바탕에 업을 이끄는 경영 5원칙이 있다.

1. 살갓에 자극을 주지 않는: 1851년 조제 약국에서 시작한 키엘 연구원들은 세계 각지에서 구한 자연 성분 재료를 바탕으로 좋은 색이나 향을 가진 제품이 아니라, 살갓에 자극을 주지 않는 있는 제품만을 고집하며 화장품 혁신을 이끌어 왔다. 1979년, 그 공로를 인정받아 미국 스미스소니언 자연박물관 약학제품 부문에 103종이, 2005년 3종을 추가해 모두 106종이 영구 전시되고 있다.

2. 정직한 제품만을: 키엘 용기는 정직한 제품 상징으로 단순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용기만을 쓰고 인공색소나 향을 거의 쓰지 않는다.

3. 샘플을 써보고: 여성이라면 화장품은 사기 전에 일단 한번 써보기를 바

라는 마음을 잘 헤아린 키엘은 자신 피부 타입에 제품이 잘 맞는지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처음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한 해에 1억 개가 넘는 샘플을 나눠주고 있다.

4. 지역사회와 함께: 이윤은 반드시 사회에 되돌린다는 키엘 기업철학은 한 세기가 넘도록 이어오고 있다. 키엘은 Youth AIDS (전 세계 청소년들 대상에이즈 퇴치교육) 후원활동, 그린란드 환경 보존 활동처럼 다양한 사회 환원 활동을 위해 한정 제품을 제작 수익금을 모두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지역 커뮤니티 전략으로 그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5. 광고를 하지 않아: 키엘은 오랜 시간과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유명 연예인을 내세운 광고나 프로모션이 아니라, 고객과 함께 브랜드 가치와 전통을 만드는 게 더 의미 있다는 생각으로 품질과 서비스, 입소문으로 성장해왔다. 브랜드 피트 같은 캠페인 파트너들은 키엘 제품을 즐겨 쓰는 고객으로 키엘 정신에 뜻을 같이해 함께할 뿐 어떤 보

수도 받지 않는다. 상업 광고에 돈을 쓰지 않아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돌릴 수 있다.

지구 사랑 5서약

환경을 생각하는 오랜 브랜드 전통과 소비자 요구를 반영 다섯 가지 지구별 사랑서약을 선언했다.

1. 포장은 최소, 재활용은 최대: 쓸데없는 포장을 줄이고 재활용할 수 있는 소재로 포장하려고 애쓰겠다. 포장물이 아닌, 화장품 원료에 우선순위를 두겠다.

2. 자연 친화제품으로: 파라벤, 실리콘, 황산염, 글리콜 따위 성분이 없이 무해 물질로 분해되어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 제품을 더 많이 선보이겠다.

3. 용기를 되살려: 최대한 재활용을 하고, 소비자들이 매장으로 돌려준 빈 병은 새로운 기능을 가진 아이টে็ม으로 탈바꿈시킨다.

4. 되살림 프로그램 진행: 고객들이 돌려준 빈병으로 유니폼을 만들고, 매장 디스플레이에 재활용 자재를 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5. 생산에서 자원 사용을 줄여: 제품을 생산할 때 쓰이는 물이나 에너지를 덜 써 자원 낭비를 줄이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다.



플라스틱 병을 살린 가운을 입고 캠페인을 벌이는 KCR

플라스틱병이 분해되는데 500년이 걸려

키엘 환경사랑은 40년 전부터 시작됐다. 키엘 모든 용기는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만들어진다. 종이상자나 비닐 같은 포장을 쓰지 않는다. 다른 회사가 예쁘고 화려한 포장을 디자인할 때, 키엘은 어떻게 하면 불필요한 포장을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해마다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재활용하고 보상받기’ 프로그램은 오래 이어온 미션이다. 플라스틱 병 하나가 분해되는데 500년이나 걸린다. 키엘은 플라스틱 병 때문에 생기는 환경오염과 쓰레기를 줄이려고 키엘 매장으로 정품 빈병을 가져오면 수량에 따라 화장품을 받을 수 있는 ‘빈병 스탬프 카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12년 5월부터 빈병 스탬프

카드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담아 종이 사용량을 줄여 환경 보존에 앞장서고 있다.

2011년, 환경을 지키는 새로운 방법으로 플라스틱병에서 뽑은 친환경 섬유 Bionic® Yarn을 활용, 매장에서 근무하는 KCR(Kiehl's Customer Representative, 전문 지식을 가진 1:1 상담자) 가운을 만들었다. Bionic® Yarn은 친환경 소재를 만드는 ‘Returns Textiles’ 그리고 음악가이자 프로듀서인 Pharrell Williams와 함께 작업했다. 플라스틱병 10개로 만든 KCR 가운은 먼치럼 높은 품질과 느낌을 유지하는 클래식하다. 키엘은 앞으로도 고객들이 사용한 빈병을 재활용할 뿐만 아니라, 빈병들

을 재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오래된 나무 살리기 캠페인

우리나라에서 벌이는 2008년 배우 이범수와 함께 한 '그린 콘서트', 2009년 '인왕산 살리기' 프로젝트, 2010년 '한국 작은 산 살리기' 프로젝트와 '오래된 나무 살리기 캠페인'은 1세기 넘게 이어 오고 있는 키엘 사회 공헌 활동 일환으로 환경 보존 중요성과 함께 전통과 역사 중요성을 함께 되새기려는 깊은 뜻을 담고 있다. 2010년 '오래된 나무 살리기' 캠페인에는 음악감독 박칼린, 시골 의사 박경철, 스케이팅 선수 이규혁, 배우 한지혜가 함께했다.

2011년부터는 디자인 공모전을 열어 수분 크림 한정판을 내놓아, 소비자들과 함께 곱다라니 결을 이루고 있다. 첫 공모전 디자인 주제는 '오래된 나무, 에코 그리고 키엘'이었으며, 나이나 직업에 상관없이 환경에 관심이 많은 소



2011 오래된 나무 사랑 캠페인
울트라 페이스 크림 정보 리미티드 에디션

비자 2300여명이 5000점이나 응모했다. 작품은 전문가, 소비자 온라인 서베이로 심사했으며 최종 당선된 네 작품은, 2011년 오래된 나무 살리기 뜻을 같이 하는 나무 서포터 네 사람이 쓴 나무 사랑 메시지와 사인을 함께 넣어 키엘 수분 크림 2011년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만들어 판매했다. 이 수익금으로 조성한 기금 4000만 원은 올해 4월 22일 지구의 날에 한국 전통문화 창조 계승을 목표로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아름지기'에 기부했다.

아름지기는 양반 나무로 불리는 희귀 나무로 경기도 양평에 있는 200년 된 회화나무와 안성에 있는 400백 년 된 느티나무, 신선목으로 불리는 경기도 이천에 있는 250년 된 들메나무 그리고 태풍으로 상처를 입어 치료가 급박한 500년 넘은 경기도 고양시 느티나무와 같이 오랜 역사가 담긴 소중한 나무들을 보존하는데 힘쓴다.

캠페인에 뜻을 같이하는 나무 서포터는 한국 자연을 사진으로 아름답게 재해석하여 보여주는 한국을 대표하는 사진작가 김중만과 영화 '활'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보여주고, 역사의 식을 가진 나무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는 김한민 감독. 남자의 자격에서 청춘 합창단 보컬 트레이너를 맡아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낸 뮤지컬 배우 임혜영. 키엘과 함께 이미 창덕궁 자연 환경 보호를 위해 뜻을 같이 한 바 있



400살 된 안성 느티나무

는 배우 이선균으로 한 해 동안 선정된 나무 네 그루를 지키는 일에 함께 한다. 2012년에도 많은 디자이너들이 함께한 '한국의 궁궐, 오래된 나무, 그리고 키엘'이라는 주제로 '2012 키엘 수분 크림 디자인·영상 공모전'을 개최, 수상작을 뽑았다. 앞으로도 착한 소비를 위한 '오래된 나무 수분 크림 디자인 공모전'이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사진제공: 한국 키엘)

변택주님은 국군고양병원 병사들과 부처님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을 연구하고 컨설팅과 인문학 강연을 겸하고 있다.

육식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늘어난다

글 • 박창근(가수)

마이너스건강클럽에서 정경희씨가 지은 <선식남녀, 우리는 가려서 먹는다 / 마이너스건강클럽, 북라인>와 녹색연합에서 지은 <자연을 닮은 소박한 밥상, 녹색연합이 추천하는 친환경 요리 110선 / 녹색연합, 북센스>, <자연을 닮은 사계절 밥상 / 녹색연합, 북센스>, 그리고 <헬렌 니어링의 소박한 밥상 / 디자인 하우스> 등은 요리하는 주방에 비치해놓고 때때로 이용할 수 있는 실생활에 참 용이한 책들이다.

소위 '이치를 헤아리는 것이 요리다'라는 말처럼 먹고사는 것은 왜 중요한 것일까? 한 나라의 위대함은 짐승을 다루는 방식으로 판단할 수가 있다고 말한 간디는 사회 속에서의 가장 아래의

약자를 그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대하며 어떤 대우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 곧 그 사회의 수준이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어떤 대상을 우리가 먹기 위한 음식으로 만들어 먹는 것에는 단순히 우리 인간의 생명 연장 수준 이상의 무엇이 요구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존 로빈스는 우리가 그저 술안주로 혹은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기 위한 유희를 포함시킨 음식재료의 하나로 다루는 '고기 덩어리일 뿐인 닭'에 대해 '멋진 닭'이라고 말한다. 우리와 다른 대상 즉 우리와 같이 느끼고 숨 쉬고 사유할 줄 아는 한 대상을 놓고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는 대단히 중요하다. 머리 회전이 둔한 사람을 가리켜

닭대가리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다. 과연 닭은 머리가 둔한 동물인가? 존 로빈스의 책 <육식 건강을 망치고 세상을 망친다>(존 로빈스, 이무열 역, 이룸드 리미디어)에는 암탉에게 빨닭 알을 놓아주고 그 암탉이 자신이 낳은 알과 다른 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를 실험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암탉은 그 빨닭 알을 정성껏 품어 새끼를 탄생시키는데 이 암탉은 보통 병아리가 먹는 밀기울(밀을 뺀 가루를 내어 체로 치고 남은 찌꺼기)을 그 빨닭 새끼들에게 먹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먹는 개미집의 흰 번데기들을 찾아 준다. 한번도 키워본 적 없는 다른 종류의 닭 새끼를 키우는 방법을 암탉은 어떻게 알았을까? 그것은 지능이 아닌 본능인가? 자신의 가족이 아닌 종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행동은 단순한 지능 이상이 아닐 수 없지 않은가?

이 암탉에게 오리알을 주었는데도 결과는 앞선 예와 같이 우리를 놀라게 한다. 암탉은 그것들을 정성껏 품어 오

리가 탄생했고 이 오리들을 데리고 개울로 '꼬꼬꼬' 하며 이끌고 가 그들을 물속으로 끌어 들였다. 신이 허락한 닭의 수명은 15년~20년이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의 음식재료가 되는 닭의 수명은 2~3년이나 갈까? 닭장 속에 처해진 삶의 현실은 그들을 요리해서 먹는 우리들이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음을 우리는 과연 알고 있을까?

돼지의 IQ는 사실 개보다 더 높다. 돼지는 썩은 것, 상한 것들이 이것저것 뒤섞인 음식들을 해치우는 실로 쓰레기 처리의 일등공신이 아니다. 돼지의 코는 우리 사람보다 더 민감하여 더럽고 불쾌한 냄새를 더 잘 파악해 낸다. 그들은 원하지 않는 음식을 원하지 않는 공간에서 원하지 않는 냄새를 맡으며 먹는다. 돼지는 도살되기 전까지 닭장 속의 닭들과 마찬가지로 거의 미쳐버리게 된다. 중요한 것은 우리 속의 돼지는 사람보다 더 애교를 부리고 뛰어놀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이다.

“인간은 자신의 탐욕을 합리화하는 데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다. 자신이 먹고 싶은 것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다. - 클리블랜드 애머리.”

너무도 정확하면서 소름 끼치는 말이 아닐 수 없다. 소들은 왜 그들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싸움을 해야 하는가? 경북 지역 소싸움축제를 보고 있으면 슬픈 생각이 든다. 그들은 왜 먹고 싶지 않은 곡류를 섭취해야 하며 주시는 왜 맞아야 할까? 그것은 그들의 삶을 위한 인간의 배려인가? 인간을 위한 소들의 배려인가?

칠면조, 고양이, 개 등의 짐승들을 우리가 음식이라고 부르며 요리를 해먹고 자 할 때에는 적어도 이들이 어떻게 태어나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가야 했을 동물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모르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고통스러워하지 않는지를 파악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지 않을까? 적어도 연민과 관용, 그리고 동정심을 표현할 수 있

는 지각이 사람에게 있다면 말이다.

밍크의 부드러운 가죽과 털을 얻기 위해 산 채로 동물들의 가죽을 벗긴다. 이러한 행위는 영상을 통해 여러 번 고발됐다. 더 고차원적이며 더 지능이 높은 인간으로서 허용할 수 있는 행위라고 억지 당위성을 주장하더라도, 적어도 내 것이 아닌 다른 이들의 가죽이나 생명을 앗아 갈 때는 최소한의 도리나 기준, 그에 부합할 만한 사정은 있어야 할 것이다. 저 약육강식의 세계라 불리는 초원의 동물들의 세계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인간들의 세계보다 더 상식적일 때가 있다.

영국으로 유학을 떠난 대학시절 동기와 한 번 글을 주고받은 적이 있다. 자신이 공부하고 일하는 영국에는 글쓰기가 살기에 참 좋을 만한 환경이 많다고 했다. 그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니 그곳에는 채식주의자 전용 슈퍼마켓이 동네에도 있으며 채식으로 주문이 가능한 음식점이 널려 있다는 것이다.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은 벌써 이러한 문제

를 함께 깨우치고 공유하고 극복해나가 고자 하는 고민을 시작했다.

베지테리안에 대한 인식이 '독특한 개성을 지닌 한 개인'이 아니라 사회의 보통의 구성원으로 그들의 삶의 가치를 인정하고 문화적으로 받아들이며, 또한 그들로 인해 많은 것을 배우고 얻기도 하면서 정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수용하며 극복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대규모의 육식문화와 여전히 설전을 벌여가면서 말이다.

거리에 나온 모피 불매 운동을 하는 나체의 여인들! 평화와 반전 그리고 생명의 존귀함과 사상의 자유를 노래하던 존 레논이 들었던 확성기! 이러한 행위들은 어느 한 유별난 개인주의자의 퍼포먼스가 아닌 우리 모두의 숙제이자 미래의 모색인 것이다.

앞서 채식음식을 이야기하면서 음식 하나하나에 대한 즐거움을 표하면서도 글쓰기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 우리가 쌀을 얻고 곡식을 기르고 과일을 수확하고 여러 땅에서 나는 식물들

을 키워 섭취하는 것 또한 그 속에는 무한한 겸손과 존중과 감동과 절제 그리고 용서와 생명에 대한 겸허한 고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내 입속으로 들어가 내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 어느 것 하나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다. 채식주의자들에게도 음식의 유희적 쾌락이 지나치지 말라는 법 없는 것처럼, 이 또한 늘 스스로 깨어 있어야 하겠다. 재미있는 것은 음식의 쾌락과 재미, 그리고 지나친 탐욕은 우리 사람과 비슷한 유형의 생명 즉 움직이고 감정을 표현할 줄 아는 것(주로 동물)들을 대상으로 할 때 더욱 강하게 표출된다는 점이다.

우리는 때때로 먹는 것에 너무 과장되고 너무 의존하는 것은 아닐까? 그것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며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점심엔 꼭 무엇 무엇을 챙겨 먹어야만 이 하루가 잘 마무리될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녹차와 다수(茶壽)

글 • 문정숙 (차문화연구가)

일창이기(一槍二旗), 어린 잎따다 정성을 다해 법제하여 맑게 우려낸 녹차 한 잔!

문득 그리운 이들의 얼굴이 차향처럼 흐드러지게 피어오른다.

지난 해 가을과 겨울철의 휴양생식을 거쳐 연두 빛 자연의 질서가 오롯이 담겨진 초봄의 차 짝으로 법제한 녹차를 집안의 어른께 올리며 '다수(茶壽)' 하시라는 덕담을 드린다.

'다수'란 108세를 축원하는 뜻으로, 그 말 속에는 차를 바르게 잘 마시면 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뜻이 함축되어있다.

몹과 미음에 좋은 차를 바르게 잘 마시기 위한 첫걸음은 차의 종류와 성분

및 효능을 제대로 알고 선택하여 마실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여섯 가지 차의 종류

채취한 찻잎은 같은 찻잎이라도 제다 공정에 따라 서로 다른 차를 만들 수 있으며, 차나무의 품종에 맞추어 제품으로 완성된 차는 카테킨이 산화 또는 발효된 정도에 따라 비발효차(녹차), 부분 발효차(백차, 황차, 청차), 완발효차(홍차), 후발효차(흑차)로 분류된다.

이러한 6대차 분류법에서 '발효'라는 용어의 사용상에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 발단은 19C로 거슬러 올라간다. 1835년 경, 영국이 인도에서 홍차 제조를 시작할 무렵, 유럽에서는 파스타르

에 의한 발효 연구가 한창 주목 받고 있던 시기였다. 이 영향을 받아 당시 사람들은 홍차 제조 시 찻잎이 적갈색으로 변색되는 것도 미생물의 효소 작용에 의한 발효로 오인하였고, 그 때부터 차의 종류에 관계없이 제다 과정에서 생기는 찻잎의 변색은 모두 발효현상이라고 정의했다. 후에 학자들의 연구 결과, 찻잎의 변색(흑차 제외)은 차의 주성분인 카테킨이 산화효소(Polyphenol Oxidase)에 의해 산화되는 일련의 화학적 변화로서 '발효'가 아닌 '산화'임이 밝혀졌으나 차계에서는 여전히 발효의 용어를 예전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 대신 보

이차로 대표되는 진정한 의미의 발효차인 흑차류는 '후발효차'라 명명하여 혼란을 피하고 있다.

녹차의 정의

녹차는 6가지 차 류 중에서 카테킨을 가장 손실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담담한 맛이 언제나 변함없는 좋은 벗과 같다.

녹차는 채엽 시기에 따라 우전, 세작, 중작, 대작으로 나뉜다.

6대 차 류 중 비발효차인 녹차는 채취한 생잎을 곧바로 가마솥에 덫어서 만든 덫음 차와 수증기로 찌서 만드는 찌 차로 나누어진다. 우리나라 녹차는 대부분이 덫음 차로 만들어지며, 일본의 경우 대부분이 찌 차이다.

이렇게 제다 공정 첫 단계에서 덫거나 찌는 고온 처리 과정을 거치므로 카테킨 성분이 산화효소에 의해 철저히 파괴됨으로써, 녹차는 특유의 맑은 향기와 '청탕녹엽(淸湯綠葉)'의 특징을 지니게 된다.



녹차의 효능

오늘 날 현대인들의 잘못된 식생활 습관과 자연에서 멀어진 사회 환경은 성인병을 불러오고 있으며 특히 당뇨병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여러 가지 합병증을 동반하기 쉬운 당뇨병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고혈당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과잉 활성 산소를 제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고혈당이 지속됨에 따라 체내에 활성산소가 다량 발생되고, 이 활성산소는 DNA의 나선쇄를 절단하여 돌연변이를 일으킬 뿐 아니라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이나 지질에 작용하여 여러 가지 상해를 입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지질에 작용하여 생기는 과산화지질은 암, 심장병, 뇌졸중 등의 각종 성인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당뇨병의 예방과 치료에 유익하면서 일상적으로 섭취하기 쉬운 녹차의 생체 내 작용을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면 첫째, 녹차 성분의 10-15%를 차지하는 카테킨은 설탕과 전분과 같은 이당



류나 다당류를 분해하는 아밀라아제 등의 효소 작용을 저해함으로써 혈액 내에 당이 흡수되는 것을 억제하는 작용과 둘째, 차의 카테킨은 지방의 대사를 촉진시켜 과산화지질로 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성인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한 항산화 물질로 작용하여 신체의 노화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

녹차의 저장

녹차는 특히 온도, 수분, 광선, 공기 중의 산소, 다른 향이나 악취 등에 노출이 되면 쉽게 본래의 색·향·미를 잃기 쉽고 당색도 변하므로, 불투명한 포장 재료로 진공 포장하여 저온 저장하는 것이 좋다.

말하는 건축가, 어머니, 두 개의 문

글 • 서정민갑(대중음악의견가)

다큐멘터리 좋아하시나요? 우리가 흔히 보는 영화는 대부분 극영화이죠. 대본이 있고, 배우가 있는 영화 말이에요. 그런데 다큐멘터리는 미리 써둔 대본이 없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해서 영화를 만들지요. 물론 다큐멘터리도 촬영한 영상을 감독이 편집해서 만들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대로 만들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극영화보다는 사실적이죠.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도 하구요.

아직도 극장에서 다큐멘터리를 보기는 쉽지 않지만 텔레비전에서는 쉽게 다큐멘터리를 볼 수 있어요. KBS의 간판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인간극장>이 바로 다큐멘터리이잖아요. 그리고 MBC에서 방송한 <지구의 눈물> 시

리즈도 많은 분들이 감동받은 다큐멘터리이죠.

고전 프로그램인 <동물의 왕국>도 마찬가지이구요. 몇 년 전에는 <워낭소리>라는 다큐멘터리가 다큐멘터리 사상 가장 많은 290만명이라는 엄청난 극장 관객을 동원하기도 했죠. 이렇게 남다른 삶의 이력을 가진 사람이나 사건, 자연 등을 꾸밈없이 찍은 다큐멘터리를 보면 극영화가 줄 수 없는 감동이 있죠.

하지만 여전히 극장에서 다큐멘터리를 보기는 쉽지 않아요. 다큐멘터리가 흥행이 덜 돼서 그런지 다큐멘터리를 볼 수 있는 극장은 서울과 대도시에만 있는 몇몇 예술영화 전용관 정도뿐이에요.

중중 CGV 같은 멀티플렉스 극장에

서도 다큐멘터리를 상영하지만 적은 자본으로 만드는 다큐멘터리는 홍보를 하기도 힘들고, 많은 극장에서 상영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매년 인디 다큐 페스티벌이나 인권영화제, 인디 포럼 같은 특별한 영화제가 열리고 EBS에서는 국제 다큐 영화제를 열어서 좋은 다큐멘터리를 소개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사회적인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등장한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1988년 김동원 감독이 찍은 〈상계동 올림픽〉이 그 효시가 된 작품인데요. 그 뒤 민주화운동과 맞물리며 서울영상집단, 푸른영상 등 전문 다큐멘터리 제작집단들이 생겨나면서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왔지요.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는 개인적으로 다큐멘터리를 찍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또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요. 올해에도 좋은 다큐멘터리 작품들이 꾸준히 상영되고 있는데요. 〈말하는 건축가〉, 〈어머니〉, 〈두개의 문〉을 소개하고 싶네요.

〈말하는 건축가〉는 극영화를 찍던

정재은 감독이 찍은 다큐멘터리예요. 정재은 감독은 〈고양이를 부탁해〉라는 영화로 젊은 층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감독이지요. 극영화를 찍던 감독이 찍은 다큐멘터리는 어떨까 궁금했는데 〈말하는 건축가〉는 영화를 보고 나서는 오래도록 생각하게 되고, 여운이 남더군요.

이 다큐멘터리는 건축가 고 정기용 선생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어요. 한국의 대표적인 진보적 건축가인 정기용 선생은 ‘기적의 도서관’으로 유명한 건축가이죠. 그는 건축을 하나의 건물로만 사유하지 않았고 건축을 통해 시대를 드러내려고 했고, 시대에 대해 발언하려고 했어요. 그렇다고 거창한 의미만을 담으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과 역사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집을 만들고 건물을 만들려고 했던 거지요.

그래서 웅장하고 화려한 외관에 열중하지 않고, 멀쩡한 건물을 때려 부수고 살던 사람들을 내쫓고 지은 건물, 그렇게 해서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는 건

물이 아니라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곳에 있는 다른 건물들, 그곳에 있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물을 지으려 했고 그 건물을 통해 건축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한 분이었어요.

다큐멘터리는 바로 그런 정기용 선생의 열정적인 생각과 삶을 차분하게 보여줘요.

게다가 다큐를 찍을 때 정기용 선생은 대장암 수술을 받은 직후였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치료를 위해 침거해 있을만도 한데 그는 어느 때와 다름없이 자신의 일을 해 나가지요. 약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고 그렇다고 고집스럽지도 않아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 나가면서 죽음을 맞는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지요.

다들 오래 살려고, 죽지 않으려고 애쓰는데 정기용 선생은 죽음조차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떠나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건축가〉는 건축과 사회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어떻게 살다가 떠날지에 대해서도 깊이 성찰하게 만들지요.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는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이자 노동운동가인 이소선 씨를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예요. 이소선 어머니를 주인공으로 다큐멘터리로 만들면 그녀가 얼마나 열심히 노동운동을 해왔고, 노동자들이 얼마나 어렵게 투쟁해왔는지를 보여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회적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많이 만들어 온 태준식 감독은 다르게 접근해요. 태준식 감독은 늙고 병든 어머니의 일상을 곁에서 함께 하면서 그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시요. 어머니가 담배 피우고, 약 먹고, 화투 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어머니가 힘이 없어서 발톱을 못 자른다고 하시니까 카메라를 밀어두고 발톱까지 잘라주는 모습까지 보여주시요.

전태일의 어머니이자 노동운동가인 이소선씨가 투쟁할 때만이 아니라 집에 있을 때의 모습까지 함께 보여주면서 인간 이소선의 모습을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가 얼마나 유쾌하고 다감한 사람

인지를 담백하고 예쁘게 찍은 화면으로 보여주지요.

사회적인 주제를 담은 대개의 다큐멘터리와는 달리 따뜻한 기운이 가득한 <어머니>를 보고 나면 이제는 돌아가신 이소선씨가 그리워질뿐만 아니라 어머니에게 안겨 위로 받은 듯 마음이 잔하게 따뜻해지더군요.

<두개의 문>은 조금 달라요. 이제 막 개봉한 <두개의 문>은 2009년 1월 20일에 발생한 용산 참사를 다루고 있는 다큐멘터리예요. 당시 경찰과 철거민이 대치하면서 철거민 다섯 분과 경찰 한 분이 돌아가시는 끔찍한 결과를 낳았지요. 벌써 3년이나 지난 용산참사를 다룬 <두개의 문>은 어느 다큐멘터리와는 다르게 경찰의 진실과 자료 화면, 재판 기록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지요.

그러면서 어느 한 편의 입장에 서기 보다는 당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려고 하지요. 김일란, 홍지유 감독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대폭 강화된 공권력과 경

찰 권력 내부의 인사까지 함께 주목하고 사건 전후를 시간대별로 재구성하면서 용산 사태의 진실을 찾아가요. 침착하다 못해 냉정하고 끈질긴 영화의 호흡은 숨이 막힐 정도의 긴장감을 안겨 주면서 결국 참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음을 증언하지요. 이미 용산 사태에 대해서는 좋은 다큐멘터리가 여러 개 만들어졌지만 이렇게 목소리를 낮추고 고집스럽게 파고드는 작품은 드물어요. 그래서 선동적인 다큐멘터리를 싫어하는 이라도 작품의 시선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작품의 결론에 동의할 수밖에 없지요.

시간이 되신다면, 아니 시간이 없더라도 이 작품은 꼭 보시라고 권하고 싶네요.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장례식까지 끝났지만 아직도 사건의 진실과 본질은 다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좋은 다큐멘터리는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게 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하잖아요. 이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우리도 달라지고, 세상도 달라지겠지요.

또 다른 편지

정태경



남원 실상사의 쌍탑

글 • 박희준 (사찰생태연구소 생태연구팀장)

요즘 지리산 둘레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지리산 둘레길을 걷다가 새로운 문화의 숨결을 느끼고 싶을 때 실상사를 둘러보자.

대부분의 사찰이 산지에 위치한 것과 달리 실상사는 지리산의 끝자락인 남원

시 산내면 입석리의 농경지로 둘러싸인 평지에 자리 잡은 절로 신라 흥덕왕 3년(828)에 홍척(洪陟)이 창건한 천년고찰이다. 홍척은 풍수지리설에 의거하여 이곳에 절을 세우지 않으면 신라의 정기가 일본으로 건너간다는 설이 제기되어 실상사를 세웠다.

실상사는 일주문이 따로 없고 절 앞을 흐르는 람천에 놓인 해탈교를 건너면 길 양쪽으로 입석이 서 있는데 해탈교와 입석이 일주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몇 해 전 람천에 큰물이 나가면서 입석 두기 중 한기가 유실되어 찾을 수 없는 상태다.

해탈교를 건너 실질적 경내지에 해당하는 실상사의 천왕문을 들어서면 중심법당인 보광전이 한 눈에 들어오고, 보광전 앞뜰 양쪽에 2기의 삼층석탑이 서 있다.

탑은 2층으로 된 기단(基壇) 위에 3층의 탑신(塔身)을 올린 간결한 모습으로, 동서 두 탑 모두 탑의 머리장식이 거의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귀중한 사례다. 탑신은 몸돌과 지붕돌이 각각 하나의 돌로 만들어져 신라시대의 정형을 보이며, 각 층 몸돌에는 모서리마다 기둥 모양이 새겨져 있다. 지붕돌은 처마 밑선이 수평이며, 밑면의 받침은 4단이고, 네 귀퉁이에서 살짝 들려 있는데, 그 정도가 부드러우면서도 경쾌하다.

탑의 머리장식(상륜부)는 찰주(擦柱)를 중심으로 노반(露盤), 복발(覆鉢), 양화(仰花), 보륜(寶輪), 보개(寶蓋), 수연(水煙), 용차(龍車), 보주(寶珠)가 올려

지는데 실상사 쌍탑 중 동 삼층석탑은 상륜부의 모든 장식이 원래대로 잘 보존되어 있고, 서 삼층석탑은 수연만이 없어졌다.

이 실상사 쌍탑 중 동 삼층석탑의 상륜부를 본으로 삼아 불국사 석가탑의 유실된 상륜부를 복원하였을 정도로 완벽한 상륜부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높이 8.4m의 이 쌍탑은 신라(新羅) 흥덕왕(興德王) 3년(828) 실상사를 창건할 당시 동시에 조성된 탑으로, 탑의 규모는 크지 않은 탑이지만 부재의 구성이 잘 정돈되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신라 후기의 뛰어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탑신(塔身)과 옥개석(屋蓋石)이 각각 하나의 돌로 만들어진 신라(新羅) 정형탑(定型塔)이다. 옥개석의 추녀 밑은 수평(水平)이며 전체의 조형이 경쾌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특히 상륜부(相輪部)는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신라시대 정형탑의 원모습을 잘 보여주는 역사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불교계의 유산이다.



실상사 동삼층석탑



실상사 서삼층석탑

길상사에 간다

글 • 김현성 시 · 곡

♩ = 76

Chorus: 성복 동 길을 따라 길상사에 간다 세상 스님

Verse 1: 의 많은 말을 조용히 내려 놓고 성복
이 화신 말씀 생각한 다

Verse 2: 일 주문을 넘으면 슬픈 일 마음아픈 일 도
우 - - -

Chorus: 침묵보다 더 큰 위로는 없 네

Verse 3: 바람의 손은 안 보여도 풍경을 위로 하 네 - 성복

ending: 조용히 내려 놓고

시인이자 작사, 작곡가이기도 한 김현성님이 지난번(3월 11일, 설법전)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에서 처음 발표하여 부른 곡으로 함께한 많은 분들의 호응이 있었고, 노랫말을 알고 싶으시다고 하셨는데, 김현성님이 곡을 완성하여 사무국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뜰에서 이 노래를 들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 편집자 주

공정여행

글 • 김소영(자연사업 팀장)

공정여행이란 관광 수익의 이익이 지역경제를 위해 쓰이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경험하며, 자연을 보호하는 여행을 뜻하는데요. 불과 100여년 밖에 되지 않은 비행기 발명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되어 앞으로는 80일만의 세계일주가 가능해질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계인구의 15%만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계신가요?

대표적인 휴양지로 잘 알려진 몰디브, 발리 - 그 곳에 멋진 리조트를 짓기 위해 그곳 원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났고, 히말라야 등산로의 숙소에서 한 사람이 따뜻한 물로 샤워하기 위해 세 그루의 나무가 베어지며, 현지인들은 관광 사업을 위해 열악한 환경과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당한다고 합니다.

조금은 불편하고, 더욱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질지도 모르지만, “노는 여행”이 아닌 내가 나누는 배려로 서로가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여행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공정여행 TIP

① 지역경제를 살리는 여행

- 여행지에서 만난 판매자와 공정하게 거래하고, 그들을 존중한다.
- 공정무역상품을 구입하거나 지역산물 판매처를 이용한다.
- 현지민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와 식당을 이용한다.
- 현지민이 운영하거나 공정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체험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다.

② 탄소 배출을 최소화 하는 여행

-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줄인다.
- 화물운송이나 비행기의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짐을 가볍게 꾸민다.

③ 환경을 보호하는 여행

- 화석, 산호, 상아 등 자연유산, 멸종위기종을 재료로 한 기념품을 구매하지 않는다.
- 무분별한 식물의 채취나 동물의 포획을 하지 않는다.
- 물을 낭비하지 않는다.
- 음식을 남기지 않는다.

④ 여행지의 문화를 존중하는 여행

- 지역 전통음식을 먹어보고 지역문화 체험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 여행지에 대한 문화, 역사, 경제, 사회이슈에 관심을 가진다.
- 문화유산을 훼손하지 않는다.



중앙모임 (02-741-4696~7)

법정스님 저작권 위반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

“그동안 풀어 놓은 말뱃을 다음 생으로 가져 가지 않으려 하니, 부디 내 이름으로 출판한 모든 출판물을 더 이상 출간하지 말아주시오.” 법정스님께서 남기신 말씀입니다. 2010년 연말을 끝으로 국내 서점에서는 법정스님의 책이 절판 되었습니다.

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서점도 있었지만, 출판협동조합의 도움을 받아 늦게나마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정스님이 쓰신 책은 절판이 되었지만, 간혹 스님과 전혀 인연이 없는 작가들이 본모임의 허가나 상의 없이 '법정스님의 어찌구 저찌구'라는 책을 발간하여 서점에 전시판매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모임은 스님의 절판유지를 따르기 위해 저작권을 위반하는 각종 출판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연을 찾는 사람들의 모임 숲기행

7월 8일, 가평 화악산 북봉

7월 숲기행 장소는 '가평 화악산 북봉'입니다. 7월 숲기행은 광주모임 음악회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둘째 일요일인 8일로 옮겨 실시됩니다.

니다.

8월 숲기행 예정지는 춘천 오봉산 청평사입니다. 춘천 소양호에서 청평사를 바라보면 절을 감싸고 있는 기암괴석의 산을 볼 수 있는데 이 산의 이름이 오봉산입니다. 옛 문헌에는 '맑게 평정된다'는 뜻의 청평산으로 기록돼 있지만 나한봉·관음봉·문수봉·보현봉·비로봉 등 다섯 봉우리가 줄지어 서 있어 오봉산이라 불리게 됐다고 합니다.

참가를 원하는 분은 7월 숲기행이 실시된 이후인 7월 9일 오전 9시부터 참가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전화 신청 후 3일 이내에 입금하셔야 함에 유념해주세요.

- 7월 8일 : 가평 화악산 북봉
- 8월 4일 : 춘천 오봉산 청평사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전화 문의하세요.
 - 준비물 : 도시락, 식수, 간식, 모자, 필기구, 등산화 착용 필수
 - 참가비 : 회원 20,000원 / 비회원 25,000원
 - 입금처 : 외환은행 301-22-00270-1 / 예금주: (사)읽고 향기롭게
- 탑승지 안내

- 길상사 일주문 앞 : 오전 6시 40분
- 지하철 4호선 한성대역 5번 출구 나폴레옹 제과점 앞 : 6시 50분
- 지하철 3호선 양재역 2번 출구 컨벤션 센터 앞 : 7시 30분
- ☎ 02-741-4696~7

녹색나눔장터 7월 29일 열려요

사무실로 “읽고 장터가 언제 열리나요” 라는 문의전화가 가끔 오는데, 녹색나눔장터는 4월에서 10월, 마지막 일요일에 열린답니다.

7월은 29일에 길상사 트랙에서 열립니다. 길상사 트랙에 공간이 있으면 상시 장터인 “읽고 향기로운 가게”를 열어, 비록 많은 물품이 팔리진 않아도 환경이나 녹색 순환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작은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색나눔장터에는 회원님이나 신도님들이 직접 참여하는 베품시장도 열립니다. 올해부터 물건 판매 가격을 최고 1만원으로 상향 조절하였으니 나에겐 필요 없지만, 필요한 사람에게 순환될 수 있도록 한번 참여해보시면 어떨까요?

참여하실 분은 사무국으로 사전에 신청해주세요. 그리고 판매할 물품도 후원 받습니다. 그러나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아 장터 개최 15일전부터 받습니다. 간혹 판매할 수 없는 물건을 보내주시곤 하는데,

버리기 아까워 보내주시는 마음은 잘 알겠지만, 너무 오래되거나 입지 못하는 옷은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장터에 나온 물건들을 판매하고, 홍보하고, 장터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 까지 도움주실 분도 연락 주세요. 항상 장터에 관심가져주시는 분이 계시어서 감사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금요일

겉식이웃을 위해 밑반찬 조리해보실래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들을 위해 2가지 밑반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지원가구 수는 420가구와 단체1곳입니다. 조금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씩씩 해주실 수 있는 봉사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특히 남자 봉사자(성인, 단체 5인 이하 정도)의 도움이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조리장에 남자 봉사자가 최소 3명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리장이 정말 생-생 돌아갈텐데 말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고생도 조금 덜어드릴 수 있고요.

올해로 13번째 이어지고 있는 이 활동은 성북구를 비롯하여 동대문구, 종로구, 강서구, 노원구, 마포구로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눠주시는 분은 언제라도 전화 주세요.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급식 활동 함께 하실 분

매주 월요일과 1,3째주 수요일,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하루 2,000여명의 어르신을 위해 점심급식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을 위해 반찬과 밥을 배식해드리거나 설거지, 잔반처리등의 활동이 11시에서 1시 사이에 2,000여명의 어르신들이 식사를 해야 하기에 조금 바쁘고 분주하게 진행됩니다. 그러나 보람은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광주모임 공양 나눔의 집 개원 및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 - 7월 7일

광주모임의 공양 나눔의 집이 지난 6월 11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7월 7일 개원식을 가집니다. 아울러 광주모임 발족 15주년을 축하하고, 후원을 위한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 공양 나눔의 집 개원식
- 시간 : 7월 7일(토) /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광주 동구 지산동 709-45 지하
-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
- 시간 : 7월 7일(토) / 오후 4시
- 장소 : 광주 동구청 뒷편 KT건물 3층 대강당(광주 동구청 뒤편)
- 음악회 일정
- 1부 : 광주모임 발족 15주년 기념 (사회 - 미황사 금강스님, 초청 공연 - 범능스

님, 초대 손님 - 김병조)
 - 2부 : 법정스님을 그리는 무소유의 노래 (김현성과 움직이는 꽃)
 주최: (사)맑고 향기롭게
 주관: (사)맑고 향기롭게 광주모임
 협찬: (사)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공양나눔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결식이 웃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 공양 나눔 쌀, 물품 후원 : 광주 동구 지산동 709-45 지하. 맑고 향기롭게 광주모임)

대구모임 만촌 나눔 센터 개원식 및 경로잔치 - 7월 14일

만촌 나눔 센터 공사를 모두 마치고 7월 14일 개원식과 더불어 경로잔치를 진행합니다. 내 옆의 이웃부터 돌아보자고 추진한 <만촌 나눔 센터>는 그동안 여러 회원들의 땀과 노력으로 담을 허물고 갖가지 꽃과 식물들을 심으며,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회원들끼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왔는데, 아직 함께 꾸며야 할 공간이 많다고 합니다.

후원 및 자원봉사자(재능기부자) 모집

- 웃음교실, 학습지도, 상담, 심리치료
- 노인 급식, 밑반찬 배달, 말벗 봉사, 차량 봉사
- 북카페 관련 책장, 서적, 탁자, 다기 등 후원
- 문의 : 대구모임(053-753-8883)

주소 이전, 변경시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다달이 소식을 우편 발송하고 나면 되돌아오는 부수가 통상 20여부 됩니다. 대부분 주소 변동이나 장기간 방치로 인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사무국에서 다시 연락을 드려서 주소 변경을 확인하여 재발송해드리고 있으나, 간혹 연락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사를 가시기전에 미리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집 전화 또는 휴대폰 번호가 바뀌어도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또 하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맑고 향기롭게 활동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후원금을 변경하신다거나, 회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소식이 있으시면 사무국으로 방문 또는 전화, 편지, 메일을 보내주시시오. 겸허한 마음으로 청취하고 답변을 드리고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중앙 사무국

- 주소 : 서울 성북구 성북동 323번지 길상사내 (사)맑고 향기롭게
- 이메일 : clean94@daum.net
- ☎ 02,741-4696-7

더욱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재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

습니다. 사무국으로 전화하셔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후원액, 원하시는 출금일자 등을 말씀해주시면 편하게 신청됩니다. 지로용지에서 CMS로 변경하면 환경을 살리는 작은 실천과 더불어 봉사자와 사무국의 일손을 줄여줄 수 있고, 운영 경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후원금 변동, 중단 시에도 사무국으로 전화만 주시면 간편하게 처리해드립니다.
- ☎ 02,741-4696-7

자동이체 후원 안내

매월 원하시는 일자에 일정 금액이 본회로 입금되도록 하는 제도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일반사업후원계좌 (사)맑고 향기롭게
 - 국민은행 817-01-0253-129
 - 외환은행 117-13-60373-4
 - 농협 029-01-199412
- 결식이웃후원계좌 (사)맑고 향기롭게
 - 국민은행 817-01-0255-458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나 지로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회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번호 : 7618372

지로영수증으로 은행에 가지지 않고도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해피빈 - 콩이 만드는 행복한 기부

세상에는 많은 콩이 있습니다. 그 많은 콩 중에서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콩이 바로 '해피빈콩'입니다. 해피빈은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기부사이트로 맑고 향기롭게 모임에서도 해피빈을 통하여 온라인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콩 하나는 작지만 여러 개가 모이면 커지는 법. 언제라도 소외이웃을 돕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해피빈을 통하여 도울 수 있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회원님의 참여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맑고 향기롭게 모임 네이버 해피빈 주소 - <http://happylog.naver.com/clean94.do>

7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발송/ 7월 4일(수), 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새상을 맑고 향기롭게>

- 결식이웃 후원 일반찬 조리 자원 활동/매주 목-7월 5,12,19,26일/금-7월 6,20,27일/김치 -둘째 목요일(12일) /오전 9시 30분~오후 2시/맑고 향기롭게 조리장(길상사 주

차장 위)양념이 묻어도 좋을 일복 차림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 활동/매주 월요일(7월 2,9,16,23,30일)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7월 4,18일) 오전 10시~오후 2시/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등/ 수시 모집 중/자원활동가 교육 후 봉사
- 승가원 장애아동시설 정기 자원 활동/둘째, 셋째 일요일(7월 8일,15일)/오전 9시30분~12시/청소년 봉사자
- 묘회원(치매노인 요양시설) 농사 일손 돕기 정기 자원 활동/첫째 일요일(7월 1일) 오전 8시 30분/지하철 2, 4호선 사당역 10번 출구 한전 남부지점 앞/간편복 및 면장갑(농사일 돕기)/일반 자원 활동가
- 노인선원(치매노인 요양시설) 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마당 정기자원활동/둘째 일요일(7월 8일) 오전 8시 20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천연화장품/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삼푸, 로션, 에센스, 한방비누)/세계일화실, 비누는 맑고 조리장/선착순 7-8명/재료비 본인 부담
- 의류재활용 봉사모임/매주 화요일 의류재활용 리폼/세계일화실
- 녹색나눔장터 /7월 29일 /오전 11시~오후 3시/ 길상사 뜨락
- 숲기행 /7월 8일/ 가평 화악산 북봉



대구모임 (053-753-8883)

7월 정기 활동 안내

- 홀로 어르신 일반찬 조리 및 말벗(배달)나누기/매주 수요일/11시-음식조리, 19시-말벗(배달)봉사 / 자원봉사자수시모집
- 소리녹음봉사/매주 월요일-개별녹음 /정기모임: 매월 셋째 금요일 오후7시(예정)
- 롬비니동산(장애아동 보호시설) 자원봉사 활동/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2-6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 활동/매월 셋째화요일/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목욕,식사케어,빨래 정리,말벗)
- 황금복지관 주방보조 및 정리 봉사/매월 첫째 화요일 11시부터
- 아름다운가게 되살림터 봉사/매주 목요일 오전10시 ~ 12시
- 운영위원회의/매월 첫째 금요일 오후 7시 30분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경남모임 (055-266-0170)

7월 정기 활동 안내

- 보현행원(무료 노인요양원) 정기 자원 활동-매월 셋째 주 수요일/오전 9시 30분 사 무국출발/말벗되어 드리기, 청소, 빨래, 점심준비 등
- 자비공양의 집(무료급식소) 자원 활동-매월 넷째주 화요일 오전 10~14시/매주 토요일 오전 10~14시/창원 사파복지회관 내 식당/점심준비, 설거지, 배식 등
- 봉림청소년문화의집' 방과 후 아카데미-저소득층 공부방(초등·중등 40명) 지원/매월 첫째 주 목요일 오후 5시
- 결연세대 정기방문 자원 활동(재현이네와 10가구)-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오후 4시/쌀, 말반찬, 생활용품, 학용품 등
- '선 수련모임' 안내-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열린 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매월 넷째주 수요일 오전 11시/사무국
- 맑고 향기롭게 '청년회 회원' 모집-삶에 열정을 가진 청년이라면 누구나/가입신청 사무국 ☎(055)266-0170
- 친환경 수세미 판매-경남 회원이 아크릴사로 손뜨개질한 친환경 수세미 구입/구입문의 ☎(055)266-0170
- 천연비누 · 천연화장품 만들기 수강 신청



청하세요/매월 첫째주 / 셋째주 수요일
오후1시30분/재료비 22,000(수강료 없
음)/사무국

후원 : 농협 932-01-002933 /
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료급식
후원 : 우리은행 206-07-151128 / 이상오

광주모임 (062-236-3129)

7월 정기 활동 안내

- 맑고 향기로운 도시락 배달
매주 월~금 각화복지관과 연대 / 독거노
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에게 80개의 도
시락 배달
 - 자비공양 나눔 : 월요일 ~ 금요일 /
 - 맑고 향기로운 독서모임/ 매월 둘째 수요일 2시/사무실
- 후원 : 농협 609-02-283017 / 김영봉

대전모임 (042)823-0770

정기 활동 안내

- 충남대 대불련 후원
 - 자혜원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스
님 학교 후원
 - 지역불교문화행사 동참
- 후원 : 우체국 312850-01-000142 /
(사)맑고 향기롭게 대전지부

부산모임(051-898-2672~3)

7월 정기 활동 안내

- 장애우 이동목욕
매주 수요일/09:00~13:00
- 부산시립의료원 어르신 목욕
매주 목요일/10:00~13:00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무료 급식
매주 목요일/09:30~13:30
- 두송종합사회복지관 도시락 전달
매주 금요일/10:30~13:00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장애우 이
동목욕
매월 1째, 3째주 화요일/09:30~13:30
- 부산시립의료원 노인전문병원 목욕활동
매월 1,3주 금요일/09:30~12:00
- 매달 첫 번째 토요일-물운대 종합사회
복지관
- 매달 세 번째 화요일-지역정화활동
- 매달 세 번째 화요일-사상구장애인복지관
- 매달 네 번째 금, 토요일-웅두산 공원 무

길상사 소식 Tel:(02)3672-5945~6/ Fax:(02)3672-5947

2012년도 여름 선 수련회 일정

〈길상사 - 맑고 향기롭게 여름 선 수련회〉는
법정스님께서 발족하신 시민모임 '맑고 향기
롭게' 의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하는 수행활
동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길상사 '템플스테
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묵언"과 "참선"을 통
해, 스스로를 가만히 지켜보는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수련회 동침은 <길상사 홈페이지 - 템플스
테이 - 여름 선수련회〉를 통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련회 접수는 길상사 홈페이지에서
만 가능 합니다. (신청시 참가를 희망하는 차
수를 꼭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련 일정

- 1차 : 7월 27일(금) ~ 7월 28일(토) / 초등학생
[저학년] / 4만원 / 70명
- 2차 : 7월 30일(월) ~ 8월 1일(수) / 초등학생
[고학년] / 6만원 / 70명
- 3차 : 8월 2일(목) ~ 8월 5일(일) / 일반인 / 13
만원 / 70명
- 4차 : 8월 6일(월) ~ 8월 8일 (수) / 청소년 / 7
만원 / 80명
- 5차 : 8월 9일(목) ~ 8월 12일 (일) / 일반인 /
13만원 / 70명

• 입금방법

- ※ 예금처 : 신한은행 100-021-136827 (예
금주: 길상사)
- ※ 실제 참가자와 입금자가 다른 경우, 신청
서에 입금자명을 정확하게 적어 주세요.

- 참가준비물 : 수건, 세면도구, 메모용 필기
도구, 우산 (우천시), 개인 컵, 반팔티셔츠(
흰색)여벌, 운동화, 양말 꼭 착용바람
- 문의 : 길상사교무실 02) 3672-0036

백중 아미타 90일 기도 안내

지나 6월 4일 하안거 입재와 동시에 시작
된 백중 아미타 백중90일기도가 진행 중 입
니다.
선망조상님들의 극락왕생을 위한 백중기도
에 동참하시어 무량 공덕 지으시길 바랍니
다. 백중 초재는 7월 21일 시작되어 9월 1일
백중날 막재로 회향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불교입문 25기 개강 안내

불교를 쉽게 배울수 있는 기초교육 과정입
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가까이 하고 싶
은 분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모든 불자를 위한 입문 과정, 교육 과정 안에



서 오계를 수지하고 범명을 받아 불자로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부처님의 삶을 닮아가는 소중한 첫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 기 간 : 7월 25일(개강) ~ 10월 10일(중강 예정)
- 매주 수요일 / 3개월 12주 과정 / 주간반, 야간반 진행
- * 수업시간 : (주간반) 오후 1시 30분 ~ 오후 3시 30분
(야간반) 저녁 7시 30분 ~ 저녁 9시 30분

2013년도 대학입시 100일 기도 안내

맑고 향기로운 도량 길상사에서는 2013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기도를 아래와 같이 봉행할 예정이오니 수희 동참하시어 원하시는 소원 이루시길 부처님전 발원합니다.

- 입재일: 2012년 8월 1일(수) 오전 9시 50분
- 회향일: 2012년 11월 8일(목) 오전 8시 시작 ~ 오후 5시 40분
- 장 소: 극락전
- ※ 100일 기도 기간중 입시 특별기도가 매일 극락전에서 오후 2시~4시까지 법사님을 모시고 봉행될 예정입니다.

다라니 기도

- 일정: 8월 4일 (오후8시 ~ 10시)
- 염송다라니: 신묘장구대다라니
- 장소: 극락전
- 동참금: 무료 (누구나 참여가능)

시민선방 철야정진

- 일정: 8월 11일 (오후9시~다음날 오전4시)
- 장소: 길상선원
- 법사: 주지스님
- 동참금: 무료 (누구나 참여가능)
- 간식으로 죽 공양 합니다.

삼천배 철야정진

- 일정: 8월 11일(오후8시30분~다음날 오전4시)
- 장소: 극락전
- 준비물: 물병, 수건, 좌복보호대
- 동참금: 무료 (누구나 참여가능, 죽/과일 간식 제공)
- 주의사항: 반드시 좌복보호대를 깔고 수행에 임하세요.